

MG 호남새마을금고
창립 41주년 및 도남지점 이전 기념 특판
정기예탁 **2.3%** (기부금리 1년 2.2% + 총자
500만원 입금시 0.1% 우대)
본점 064.755-6400 | 신기초 064.744-6300 | 도남 064.751-6800

한리일보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총력

제주, 오늘 유치추진위 발족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 제주 유치를 위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회,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남수 제주도 의회의장, 제주 COP28 유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총회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26차 총회에서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되면, 개최도시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탄소 정책 홍보와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COP28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도민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와 COP28 인식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제주의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결의문 낭독, COP28 유치 서명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1995년 이후 매년 1회 개최하는 회의체로,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제주 유치를 공동노력을 기울여 기로 합의했고, 10월에는 제주 유치 실무 TF를 구성했다. 12월에는 COP28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지난 4월부터 제주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소비자물가 9년여만에 '최고'

5월 도내 소비가물가 1년 전보다 3.6% 올라 석유류·농축수산물 등 가격 오름세 지속 영향 생활물가지수도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아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5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9년여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3일 발표한 '제주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도내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6% 올랐다. 이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그 이전까지 감안하면 2011년 12월(3.7%) 이후 9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작년 4월 0.9%의 상승률을 보였던 도내 소비자물가는 4~6월 석달 동안은 마이너스 물가(각각 -0.2%, -0.8%, -0.3%)를 찍기도 했고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0%대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하지만 2월 1.2% 상승에서 3월 2.1%, 4월 3.3%에 이어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3.3% 상승했다. 특히 마늘(67.0%), 돼지고기(10.7%), 고춧가루(39.7%), 국산쇠고기(9.8%), 쌀(13.1%), 고구마(11.4%), 수박(15.1%), 참외(17.6%)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양배추(-47.5%)와 감자(-12.7%) 가격은 떨어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17.7%), 갈치(3.8%) 가격이 뛰었다.

공업제품 상승도 가팔라 4.6%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26.4%), 경유(21.5%), 취사용 LPG(17.7%)가 경증 뛰었다.

이같은 높은 상승률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

서비스물가는 1년 전 대비 1.3%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국

제항공료가 13.9% 오른 것을 비롯해 보육시설이용료(9.5%), 구내식당식사비(7.8%), 보험서비스료(9.6%),

생선회(외식, 5.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서비스요금 중 사립대학교 납입금(-3.2%)과 유치원납입금(-32.6%), 학교보충교육비(-26.0%)는 내렸다.

구입인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4.6%

상승해 전달(4.3%)보다 오름폭을 키웠는데, 2011년 8월(5.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 신선 어개(생선, 조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과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한 신선식품지수는 14.5% 올라 서민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연분홍 산철쭉의 유혹. 초여름 날씨가 계속된 2일 한라산 여러목 등반로 만세동산 일대에는 연분홍 산철쭉이 활짝 피어나 오가는 등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남대야생대생물연구소 제공

<알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제주권 대토론회

올해는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 부활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해 전부개정 이후인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법제가 주민의 공감과 지지 아래 한층 내실 있고 선진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는 전국순회대토론회를 기획, 그 네번째로 제주권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코로나 시기를 감안, 초청인사 중심으로 갖게 되며, 각 지역 회원사 지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

- 주 제 :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 일 시 : 2021년 6월10일(목) 14:00~16:30
- 장 소 : 제주 시리우스호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33) 시리우스홀(지하 1층)

■ 대토론회 프로그램

- 기조발제 I :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
- 발 제 II :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 좌 장 :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지정토론 :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위원실장, 강호진 제주대인양공공체 공공정책센터장
- 행사 문의처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무국(033)260-9009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리일보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068
2일 18시 기준

'아동친화도시 제주' 만들기 행보 본격

도, 3~22일 사이 관련 슬로건·캐릭터 전국 공모 2023년 하반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박차

제주도가 2023년 하반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22일까지 '아동친화도시 제주' 슬로건 및 캐릭터를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슬로건 및 캐릭터는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핵심메시지로 사용된다.

제주도는 타시·도와 차별화된 아동친화도시 가치와 비전을 내포하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

및 캐릭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간 내 접수된 공모작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공감성, 활용성 등 5개 기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아동의 선호도 심사를 거쳐 6월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 및 캐릭터에 대해서는 최우수 각 1건 100만원, 우수 각 2건 50만원, 장려 각 2건 25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소식란(새소식 및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jumma815@korea.kr)과 FAX(064-710-2869)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담부서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했다. 또한 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에는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고대르기자

제13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행사를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코로나19 이겨낼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KRA 한국마사회